

2026 진성하T 수능영어 특강교재 · 해설서 [1세트]

정답 · 직독직해

[정답 일람] 20번 ③ · 21번 ④ · 22번 ① · 23번 ⑤ · 24번 ② · 31번 ④ · 32번 ② · 33번 ① · 34번 ⑤ · 36번 ③ · 37번 ② · 38번 ④ · 39번 ③

20번 [주장] 정답 ③

■ 직독직해

Designers still begin from an imagined average user and treat everyone else as a special case, to be accommodated after the real work is done.

↳ 디자이너들은 여전히 출발한다 / 상상된 평균 사용자에서, / 그리고 그 밖의 모두를 특수한 사례로 취급한다, / 진짜 작업이 끝난 뒤에야 배려될 대상으로.

The habit misplaces the difficulty.

↳ 그 습관은 / 어려움이 놓인 자리를 / 잘못 짚는다.

A person is shut out not by his own body but by a door, a screen or a form drawn without him in mind.

↳ 한 사람이 배제되는 것은 / 그 자신의 몸 때문이 아니라 / 문, 화면, 혹은 서식 때문이다 / 그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려진.

Nor is the margin narrow: the use of one hand may be lost for a lifetime, for a week after surgery, or for the minute a parent carries a child.

↳ 그 가장자리가 좁은 것도 아니다: / 한 손의 사용은 / 평생 상실될 수도, / 수술 후 일주일 동안 상실될 수도, / 부모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일 분 동안 상실될 수도 있다.

The word 'special' hides how ordinary that edge is.

↳ '특수한'이라는 그 말은 / 그 가장자리가 얼마나 평범한지를 / 감춘다.

An accommodation bolted on at the end serves only those it was bolted on for; a solution begun at the edge travels inward and reaches everyone.

↳ 마지막에 덧대어 붙인 배려는 / 오직 그것이 덧대어진 대상만을 위해 봉사하지만; / 가장자리에서 시작된 해법은 / 안쪽으로 이동하여 / 모두에게 닿는다.

Berkeley's curb ramps, cut for wheelchairs, now carry strollers and suitcases; captions written for the deaf serve every passenger in a noisy carriage.

↳ 버클리의 연석 경사로는, / 휠체어를 위해 깎인 것인데, / 이제 유모차와 여행 가방을 실어 나른다; / 청각장애인을 위해 쓰인 자막은 / 시끄러운 객차의 모든 승객에게 봉사한다.

Nothing was taken from the many to give this to the few.

↳ 아무것도 다수에게서 빼앗기지 않았다 / 이것을 소수에게 주기 위해.

Begin, then, where the design fails, and let human difference stand at the start of the work, not at its end as repair.

↳ 그러므로 시작하라 / 설계가 실패하는 그곳에서, / 그리고 인간의 차이를 세워 두라 / 작업의 출발점에, / 그 끝에 수리로서가 아니라.

21번 [함축] 정답 ④

■ 직독직해

A slippery slope argument warns that one modest step will drag us, stage by stage, to a ruin nobody wants.

↳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경고한다 / 하나의 사소한 발걸음이 / 우리를 끌고 갈 것이라고, / 단계마다, / 아무도 원치 않는 파멸로.

Most people answer it in one of two ways, and both answers are too quick to be of any use.

↳ 대부분의 사람은 / 그것에 두 방식 중 하나로 답하는데, / 두 답 모두 / 쓸모가 있기에는 너무 성급하다.

Some take the warning for proof in itself, as though the picture of a boot slipping on ice were an argument; others dismiss the whole family of such warnings as a fallacy, to be named and waved away.

↳ 어떤 이들은 / 그 경고를 그 자체로 증명으로 삼는다, / 마치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는 장화의 그림이 / 하나의 논증이라도 되는 듯이; / 다른 이들은 / 그런 경고 일가 전체를 오류로 일축한다, / 이름 붙여 손 저어 물리칠 것으로.

The second answer is the more respectable and the more mistaken, and the first is not rescued by the vividness of its picture.

↳ 두 번째 답이 / 더 점잖으면서 더 그르고, / 첫 번째 답도 / 그 그림의 생생함으로 구제되지 않는다.

A picture proves nothing at all; a slope is a claim about causes at work in the world, not a mood or a metaphor.

↳ 그림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 비탈길은 / 세계에서 작동하는 원인들에 관한 주장이지, / 기분이나 은유가 아니다.

But a first step can genuinely make a second likelier: it may lower the cost of the next decision, hand a precedent to whoever will take it, or quietly alter what the public finds thinkable.

↳ 그러나 첫걸음은 / 진정으로 두 번째 걸음을 더 있음직하게 만들 수 있다: / 그것은 다음 결정의 비용을 낮추거나, / 그 결정을 내릴 누구에게든 선례를 쥐여 주거나, / 대중이 생각할 만하다고 여기는 바를 / 조용히 바꿔 놓을 수 있다.

Where such machinery is shown to be at work the warning has earned its hearing, and the easy retort that a line drawn today can be redrawn tomorrow is no answer.

↳ 그러한 기제가 / 작동 중임이 제시되는 곳에서 / 그 경고는 경청될 자격을 얻으며, / 오늘 그은 선은 내일 다시 그으면 된다는 / 손쉬운 반박은 / 답이 되지 못한다.

What the warning may never do is skip the showing.

↳ 그 경고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은 / 그 제시를 건너뛰는 것이다.

When nobody names the cause that would carry us from the first step to the last, the warning is only a shadow on the wall, frightening precisely because we cannot see what casts it.

↳ 아무도 이름 대지 못할 때 / 우리를 첫걸음에서 마지막 걸음까지 실어 갈 그 원인을, / 그 경고는 / 벽에 드리운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 바로 무엇이 그것을 드리우는지 볼 수 없기에 / 무서운.

22번 [요지] 정답 ①

■ 직독직해

We file the wish to belong among our preferences: pleasant when satisfied, disappointing when not, but hardly a thing a person could be said to need.

↳ 우리는 분류해 넣는다 / 소속되고 싶다는 바람을 / 우리의 선호 항목에: / 충족되면 유쾌하고, / 그렇지 않으면 실망스럽지만, / 사람이 필요로 한다고 말할 만한 것은 / 결코 아니라고.

A need, properly speaking, is what damages us by its absence, whether or not we are in the mood to want it.

↳ 필요란, / 엄밀히 말하면, / 그 부재로써 우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 우리가 그것을 원할 기분인지 아닌지와는 무관하게.

Which of the two the hunger for company is cannot be settled by asking people how much they say they care about it.

↳ 사람에 대한 그 허기가 / 둘 중 어느 쪽인지는 / 결정될 수 없다 /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경 쓴다고 말하는지 물어서는.

So consider an experiment, and a cruel one.

↳ 그러니 한 실험을 살펴보라, / 그것도 잔인한 실험을.

A volunteer lies in a scanner, tossing a ball in a computer game with two strangers he will never meet; after a while they stop throwing it to him.

↳ 한 자원자가 / 스캐너 안에 누워, / 컴퓨터 게임에서 공을 주고받는다 / 결코 만날 일 없는 두 낯선 이와; / 얼마 뒤 / 그들은 그에게 공 던지기를 멈춘다.

The game is trivial, the strangers are fictions, and the exclusion costs him nothing whatever, yet the region of the brain that registers a bodily injury begins to fire, and the harder it fires, the worse he says he felt.

↳ 그 게임은 사소하고, / 그 낯선 이들은 허구이며, / 그 배제는 그에게 아무런 대가도 물리지 않는다, / 그런데도 / 신체적 상해를 등록하는 뇌 영역이 / 발화하기 시작하고, / 그것이 더 세게 발화할수록, / 그는 더 나빴다고 말한다.

The alarm did not wait to be told that this group mattered; to be pushed out of the band once meant exposure, and a body slow to sound it left no descendants.

↳ 그 경보는 / 이 집단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 기다리지 않았다; / 무리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 한때 무방비의 노출을 뜻했고, / 그 경보를 늦게 울리는 몸은 / 후손을 남기지 못했다.

What we file under sentiment is a warning system, and we misread ourselves when we treat its complaints as taste.

↳ 우리가 감상으로 분류해 넣는 것은 / 하나의 경보 체계이며, /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독한다 / 그 항의를 취향으로 취급할 때.

23번 [주제] 정답 ⑤

■ 직독직해

In many bargains one side knows what the other can only guess.

↳ 많은 거래에서 / 한쪽은 안다 / 다른 쪽이 그저 짐작만 할 수 있는 것을.

The seller of a used car knows whether it hides a fault; the buyer sees a clean bonnet and hears a plausible story.

↳ 중고차의 판매자는 안다 / 그것이 결함을 감추고 있는지를; / 구매자는 / 깨끗한 보닛을 보고 / 그럴듯한 이야기를 들을 뿐이다.

The obvious worry is that the ignorant party will be fleeced, and sometimes he is; but the deeper damage falls on people who never meet at all.

↳ 뻔한 걱정은 / 모르는 쪽이 등쳐지리라는 것이고, / 실제로 때때로 그렇다; / 그러나 더 깊은 손상은 / 아예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떨어진다.

Unable to tell a sound car from a bad one, buyers will pay no more than an average car is worth.

↳ 멀쩡한 차와 나쁜 차를 구별하지 못하므로, / 구매자들은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 평균적인 차의 값어치 이상은.

That price insults the owner of a good car, who withdraws it and goes on driving it.

↳ 그 가격은 / 좋은 차의 소유자를 모욕하고, / 그는 그 차를 시장에서 거두어 / 계속 타고 다닌다.

What disappears at the end of the spiral is not merely a fair price but the trade itself: two people who would both have gained never do business, because neither can prove which kind of car stands between them.

↳ 그 나선의 끝에서 사라지는 것은 / 단지 공정한 가격이 아니라 / 거래 자체다: / 둘 다 이득을 보았을 두 사람이 / 결코 거래하지 못한다, / 어느 쪽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 그들 사이에 놓인 차가 어떤 종류인지를.

With the good cars gone the average sinks, buyers offer still less, and the next tier of honest owners quietly leaves in turn.

↳ 좋은 차들이 사라지면서 / 평균은 가라앉고, / 구매자들은 더 적게 제시하며, / 그다음 층의 정직한 소유자들이 / 조용히 차례로 떠난다.

The same emptying is watched in insurance, where the healthy abandon policies priced for the sick, and in lending, where sound borrowers refuse rates written for the reckless.

↳ 동일한 비워짐이 관찰된다 / 보험에서, / 거기서는 건강한 이들이 / 병자에 맞춰 값 매겨진 보험을 버리고, / 또 대출에서, / 거기서는 건실한 차입자가 / 무모한 이들에 맞춰 쓰인 금리를 거부한다.

24번 [제목] 정답 ②

■ 직독직해

Reports of the impossible have always reached us: the dead walking, water turned to wine, iron floating on a still pond.

↳ 불가능한 일에 관한 보고는 / 늘 우리에게 닿아 왔다: / 죽은 자가 걷고, / 물이 포도주로 바뀌며, / 쇠가 잔잔한 연못 위에 뜬다는.

Two very different questions can be put to such a story — whether the thing could have happened at all, and whether the word of a witness could ever make it reasonable to believe that it did.

↳ 매우 다른 두 물음이 / 그런 이야기에 던져질 수 있다 — / 그 일이 애초에 일어날 수 있었는가, / 그리고 한 증인의 말이 / 그것이 일어났다고 믿는 일을 / 언제든 합당하게 만들 수 있는가.

Hume's essay is remembered as an answer to both, and the two answers pull apart.

↳ 흠의 논고는 / 그 둘 모두에 대한 답으로 기억되지만, / 그 두 답은 / 서로 갈라진다.

His starting rule was plain: proportion your belief to the evidence.

↳ 그의 출발 준칙은 분명했다: / 그대의 믿음을 / 증거에 비례시켜라.

The evidence against a miracle is then of a peculiar strength, for a miracle is just that event which the whole uniform course of experience contradicts, and the case for doubt is as full as any case can be.

↳ 그러면 기적에 반대하는 증거는 / 독특한 힘을 지닌다, / 왜냐하면 기적이란 / 경험의 한결같은 전체 흐름이 반박하는 / 바로 그런 사건이기 때문이고, / 의심할 근거는 / 어떤 근거가 그럴 수 있는 만큼이나 / 가득 차 있다.

Yet he never undertook to show that nature cannot depart from its course.

↳ 그러나 그는 결코 / 자연이 제 행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 보이려 하지 않았다.

His argument leaves the wonder possible and still leaves belief in it unreasonable, because what must be set against that mountain of experience is not the event but the report, and testimony is spoiled by honest error, by the pleasure of telling a marvel, and by the eagerness of those who wish it true.

↳ 그의 논증은 / 그 경이를 가능한 것으로 남겨 두면서도 / 그것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불합리한 것으로 남긴다, / 왜냐하면 그 경험의 산더미에 맞세워야 할 것은 / 사건이 아니라 보고이기 때문이고, / 증언은 망가진다 / 정직한 착오로, / 경이를 이야기하는 즐거움으로, / 그리고 그것이 참이기를 바라는 이들의 열망으로.

He should accept the report, Hume held, only if its falsehood would be a stranger thing than the marvel it relates; and since that condition is almost never met, sincerity in a witness, however complete, seldom amounts to a reason.

↳ 그는 그 보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 흠은 보았다, / 오직 그것의 거짓됨이 / 그것이 전하는 경이보다 / 더 기이한 일일 경우에만; / 그리고 그 조건은 거의 결코 충족되지 않으므로, / 증인의 진실함은, / 아무리 온전하더라도, / 좀처럼 하나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31번 [빈칸] 정답 ④

■ 직독직해

We look for leadership at the top of the chart: in the title, the corner office, the right to give orders.

↳ 우리는 리더십을 찾는다 / 조직도의 꼭대기에서: / 직함에서, / 모퉁이 사무실에서, / 명령할 권리에서.

On this picture, to lead is to hold power over others, and those below simply do as they are told.

↳ 이 그림에서, / 이끈다는 것은 / 남들 위에 권력을 쥐는 일이고, / 아래에 있는 이들은 / 그저 시키는 대로 한다.

Yet a command is not a stone thrown at a subordinate; it is a message, and a message has force only where it is received.

↳ 그러나 명령은 / 부하에게 던진 돌이 아니다; / 그것은 메시지이며, / 메시지는 힘을 지닌다 / 오직 그것이 수령되는 곳에서만.

A manager may issue an order that is perfectly clear, perfectly lawful and perfectly ignored, kept to the letter while its purpose dies quietly in the corridor.

↳ 관리자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완벽히 명료하고, / 완벽히 적법하며, / 완벽히 무시되는 명령을, / 문자 그대로는 지켜지되 / 그 목적은 복도에서 조용히 죽어 가는.

This is why the order obeyed in form and emptied in spirit has been complied with rather than authorised.

↳ 바로 이 때문에 / 형식으로는 복종되고 정신으로는 비워진 그 명령은 /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 이행된 것일 뿐이다.

Every organisation runs on a zone inside which instructions are followed without a second thought, and the width of that zone is nowhere written on the chart: it widens where the purpose is understood and the trust has been earned, and shrinks to nothing where they have not.

↳ 모든 조직은 하나의 영역 위에서 돌아간다 / 그 안에서는 지시가 /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따라지는, / 그리고 그 영역의 폭은 / 조직도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 그것은 넓어진다 / 목적이 이해되고 신뢰가 획득된 곳에서, / 그리고 무(無)로 줄어든다 / 그렇지 못한 곳에서.

Authority, then, does not descend from the diagram; it rises from the _____ of those who receive it.

↳ 그러므로 권위는 / 도표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 그것은 _____에서 솟아오른다 / 그것을 수령하는 이들의.

32번 [빈칸] 정답 ②

■ 직독직해

For Roland Barthes a myth is not an old tale of gods but something modern culture performs on itself daily, in a magazine cover, an advertisement, a phrase too familiar to notice.

↳ 롤랑 바르트에게 신화란 / 신들에 관한 옛이야기가 아니라 / 현대 문화가 스스로에게 날마다 행하는 무엇이다, / 잡지 표지에서, / 광고에서, / 너무 익숙해 눈치채지 못하는 문구에서.

Its work is done not on the truth of what it says but on the origin of what it shows.

↳ 그 작업이 행해지는 곳은 / 그것이 말하는 바의 진위가 아니라 / 그것이 보여 주는 바의 기원(起源)이다.

What a society settled at a certain hour, for the benefit of certain people, is handed back to us wearing the face of the way things simply are.

↳ 한 사회가 어느 시각에, /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 정해 놓은 것이 / 우리에게 되돌려진다 / 그저 사물이 그러한 방식이라는 얼굴을 쓴 채.

A myth need not lie; its whole power lies in _____, so that what was once decided looks like what was merely found.

↳ 신화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 / 그 힘 전체는 _____에 놓여 있고, / 그리하여 한때 결정된 것이 / 그저 발견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

Nor could it work as well if it did lie, for a lie can be caught out and denied, while the myth says nothing that a court could correct.

↳ 거짓말을 한다면 그만큼 작동하지도 못할 것이다, / 왜냐하면 거짓말은 / 들통나고 부인될 수 있지만, / 신화는 / 법정이 바로잡을 만한 것을 /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It states no falsehood; it merely wipes off the fingerprints.

↳ 그것은 어떤 허위도 진술하지 않는다; / 그저 지문을 닦아 낼 뿐이다.

The arrangement is left in plain view, stripped of the hour it was made in, the hands that made it and the interests it was made to serve, until questioning it feels like quarrelling with the weather.

↳ 그 배치는 / 훤히 보이는 자리에 남겨진다, / 그것이 만들어진 시각과, / 그것을 만든 손들과, / 그것이 봉사하도록 만들어진 이해관계가 벗겨진 채, / 마침내 그것에 의문을 던지는 일이 / 날씨와 다투는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That is why the loudest propaganda is the least mythical of all: what shouts can be answered, whereas what goes without saying cannot even be addressed.

↳ 바로 그래서 / 가장 시끄러운 선전이 / 가장 덜 신화적이다: / 외치는 것에는 답할 수 있지만, / 말할 필요조차 없어진 것에는 / 말을 걸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33번 [빈칸] 정답 ①

■ 직독직해

A modern language model turns every word into a point in a vast space of numbers, and that point is not placed there by a lexicographer.

↳ 현대의 언어 모델은 / 모든 단어를 하나의 점으로 바꾼다 / 광대한 수의 공간 속에서, / 그리고 그 점은 / 사전 편찬자가 거기 놓아 준 것이 아니다.

It is learned from the company the word keeps: words that turn up among the same neighbours across millions of sentences are drawn together, and words that rarely share company drift apart.

↳ 그것은 학습된다 / 그 단어가 어울리는 무리로부터: / 수백만 문장에 걸쳐 같은 이웃들 사이에 나타나는 단어들은 / 서로 끌어당겨지고, / 무리를 좀처럼 나누지 않는 단어들은 / 멀어져 표류한다.

Distance in such a space therefore means something, though not quite what a reader first assumes.

↳ 그러므로 그런 공간에서의 거리는 / 무언가를 뜻한다, / 다만 독자가 처음 가정하는 그것은 / 아니다.

From the way it is built, a rule follows: the more two words are used among the same neighbours, the _____.

↳ 그것이 지어진 방식으로부터 / 하나의 규칙이 따라 나온다: / 두 단어가 같은 이웃들 사이에서 더 많이 쓰일수록, / _____.

Take the easy case first, 'ocean' beside 'sea', and the rule looks like a rule about meaning.

↳ 쉬운 경우를 먼저 들어 보라, / 'sea' 옆의 'ocean'을, / 그러면 그 규칙은 / 의미에 관한 규칙처럼 보인다.

But 'hot' and 'cold' keep almost identical company as well; they take the same verbs, fill the same blanks and answer the same questions, so the space seats them side by side, as near to each other as any pair of synonyms.

↳ 그러나 'hot'과 'cold' 역시 / 거의 동일한 무리와 어울린다; / 그들은 같은 동사를 취하고, / 같은 빈칸을 채우며, / 같은 물음에 답한다, / 그래서 그 공간은 그들을 나란히 앉힌다, / 어떤 동의어 짝만큼이나 / 서로 가깝게.

Nothing has gone wrong.

↳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다.

The design rests on a single wager about language, that use is the only evidence of meaning the machine will ever see, and the wager is honoured to the letter.

↳ 그 설계는 / 언어에 관한 단 하나의 내기 위에 놓여 있다, / 곧 쓰임이야말로 / 기계가 보게 될 유일한 의미의 증거라는 내기, / 그리고 그 내기는 / 문자 그대로 지켜진다.

What the numbers record is the shape of our habits, not the content of our thoughts.

↳ 그 수치들이 기록하는 것은 / 우리 습관의 형태이지, / 우리 생각의 내용이 아니다.

34번 [빈칸] 정답 ⑤

■ 직독직해

Before the law may punish a man for a harm, it must tie the harm to what he did.

↳ 법이 어떤 사람을 해악에 대해 처벌할 수 있으려면, / 그 전에 / 그 해악을 그가 한 일에 / 묶어야 한다.

The knot the courts tie first is the simplest: ask whether the harm would have come about but for his act, and if it would, he is out of the case.

↳ 법정이 가장 먼저 매는 매듭은 / 가장 단순한 것이다: / 그 해악이 생겨났겠는가를 묻는 것 / 그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 그리고 그랬으리라, / 그는 사건에서 빠진다.

The test does its work, but it is a filter and not a verdict.

↳ 그 검사는 제 몫을 하지만, / 그것은 하나의 여과기이지 / 판결이 아니다.

Every injury has a queue of earlier conditions stretching behind it without end — the friend who lent the car, the mother who bore the driver — and each of them passes the but-for test as surely as the man in the dock.

↳ 모든 상해에는 / 선행 조건들의 줄이 있다 / 그 뒤로 끝없이 뻗은 — / 차를 빌려준 친구, / 그 운전자를 낳은 어머니 — / 그리고 그들 각각은 / but-for 검사를 통과한다 / 피고인석의 그 사람만큼이나 확실하게.

So a second question is put, and it is not a stricter version of the first: a defendant may satisfy the but-for test completely and still answer for nothing at all.

↳ 그래서 두 번째 물음이 던져지는데, / 그것은 첫 번째 물음의 더 엄격한 판본이 아니다: / 피고인은 but-for 검사를 완전히 충족하고도 / 여전히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

The second question is one of attribution rather than of physics.

↳ 그 두 번째 물음은 / 물리학이 아니라 / 귀속(歸屬)에 관한 것이다.

It asks whether the harm followed the act closely and naturally enough to be laid at this man's door, and a free choice made afterwards by somebody else, or a freak nobody could have foreseen, may cut the very thread the first test found.

↳ 그것은 묻는다 / 그 해악이 그 행위를 뒤따랐는지를 / 이 사람의 문 앞에 놓일 만큼 / 충분히 가깝고 자연스럽게, / 그리고 이후에 다른 누군가가 내린 자유로운 선택이나, / 아무도 예견할 수 없었던 기이한 사건이 / 첫 번째 검사가 찾아낸 바로 그 실을 / 끊어 버릴 수 있다.

The lesson the courts draw is a careful one: _____.

↳ 법정이 끌어내는 교훈은 / 조심스러운 것이다: / _____.

Two men may stand in the same chain of events and part company at the courtroom door.

↳ 두 사람이 / 같은 사건의 사슬 안에 서 있으면서도 / 법정 문 앞에서 / 갈라설 수 있다.

36번 [순서] 정답 ③ (B)-(C)-(A)

■ 직독직해

[주어진 글] In 1906 a French physicist examining a bed of ancient lava in the hills of central France found its magnetic grains pointing not north, as a compass does, but the other way entirely.

↳ 1906년 / 한 프랑스 물리학자가 / 중부 프랑스 구릉의 고대 용암층을 조사하다가 / 그 자성 입자들이 / 나침반이 그러하듯 북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 완전히 반대쪽을 가리키고 있음을 / 발견했다.

He drew the boldest conclusion available to him: the earth's own field, he said, must once have been reversed.

↳ 그는 자신에게 가능한 가장 대담한 결론을 끌어냈다: / 지구 자신의 자기장이, / 그가 말하기를, / 한때 역전되어 있었음이 틀림없다고.

[(B)] The claim then slept for half a century, held down by a single stubborn objection.

↳ 그 주장은 / 그 뒤 반세기 동안 잠들어 있었다, / 단 하나의 완강한 반론에 눌린 채.

A rock, physicists pointed out, can reverse its own magnetism as it cools, by a peculiarity of its minerals, while the field around it never stirs; one backward stone therefore proved nothing at all about the planet.

↳ 암석은, / 물리학자들이 지적하기를, / 식어 가면서 제 자신의 자성을 역전시킬 수 있다, / 그 광물의 특이성 때문에, / 주위의 자기장은 꿈쩍도 하지 않는 채로; / 따라서 거꾸로 된 돌 하나는 / 행성에 관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

[(C)] Settling the matter required counting rather than arguing.

↳ 그 문제를 결말짓는 데에는 / 논쟁이 아니라 / 헤아림이 필요했다.

Through the early 1960s a team dated lava after lava by the slow decay of the potassium locked inside it, and read off the direction each had frozen in.

↳ 1960년대 초를 지나며 / 한 연구팀이 / 용암을 하나하나 연대측정했다 / 그 안에 갇힌 칼륨의 느린 붕괴로써, / 그리고 각각이 얼어붙은 방향을 / 읽어 냈다.

[(A)] The result left the doubters no room.

↳ 그 결과는 / 회의론자들에게 /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Lavas of the same age, gathered on different continents and differing in chemistry, carried the same polarity, and the polarity flipped in step all over the planet — an agreement no private quirk of minerals could ever have produced.

↳ 같은 시대의 용암들이, / 서로 다른 대륙에서 채집되고 / 화학 조성도 다른 것들이, / 같은 극성을 지니고 있었고, / 그 극성은 / 행성 전역에서 발맞추어 뒤집혔다 — / 광물의 사적인 변덕이 / 결코 만들어 낼 수 없었을 / 일치.

37번 [순서] 정답 ② (B)-(A)-(C)

■ 직독직해

[주어진 글] Aristotle asked why a crowd would willingly pay to watch a good man destroyed.

↳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었다 / 왜 군중이 기꺼이 돈을 내고 / 한 선한 사람이 파멸하는 것을 / 보려 하는지를.

His answer looked past the horrors displayed on the stage to the work that such a play performs inside the spectator himself.

↳ 그의 답은 / 무대 위에 진열된 참상들을 지나쳐 / 그런 극이 관객 자신의 내부에서 수행하는 / 작업을 바라보았다.

[(B)] A tragedy, he claimed, first awakens two emotions and no others.

↳ 비극은, / 그가 주장하기를, / 먼저 두 가지 감정을 깨우며 / 다른 어떤 것도 깨우지 않는다.

It stirs pity for a man near enough to ourselves that his ruin might have been ours, and fear on our own account, since what brought him down was no monstrous vice but an error any of us might make.

↳ 그것은 연민을 휘젓는다 / 우리 자신과 충분히 가까워 / 그의 파멸이 우리의 것일 수도 있었을 사람에 대한, /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두려움을, / 왜냐하면 그를 무너뜨린 것은 / 괴물 같은 악덕이 아니라 / 우리 누구든 저지룰 수 있는 과오였기 때문이다.

[(A)] Those feelings, however, are not raised by any story that merely piles one horror upon another.

↳ 그러나 그 감정들은 / 그저 참상 위에 참상을 쌓기만 하는 어떤 이야기로도 / 일으켜지지 않는다.

The events must follow each other by necessity or likelihood, and the fall must turn on a single hinge, where fortune reverses itself and the man at last recognises what he has done.

↳ 사건들은 / 필연이나 개연에 따라 서로를 뒤따라야 하고, / 그 몰락은 / 하나의 돌쩌귀 위에서 돌아야 한다, / 거기서 운명이 스스로 뒤집히고 / 그 사람이 마침내 /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본다.

[(C)] Only a play so built can finish the work it began.

↳ 오직 그렇게 지어진 극만이 / 자신이 시작한 작업을 / 끝맺을 수 있다.

The emotions it has drawn out of us are carried off with it, and we leave the theatre steadied rather than shaken, purged of the very feelings the drama itself awakened.

↳ 그것이 우리에게서 끌어낸 감정들은 / 그것과 함께 실려 나가고, / 우리는 극장을 나선다 / 뒤흔들린 것이 아니라 가라앉은 채로, / 바로 그 극이 깨웠던 그 감정들로부터 / 씻겨 나온 채.

38번 [삽입] 정답 ④

■ 직독직해

[주어진 문장] Within each plate the blood, rather than drifting along with this current, is driven against it.

↳ 각 판(板) 안에서 / 그 피는, / 이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 대신, / 그것에 맞서 밀려간다.

Every animal must draw oxygen from the medium around it, and water is a miserly medium: a given volume of it carries a small fraction of the oxygen packed into the same volume of air.

↳ 모든 동물은 / 주위의 매질에서 산소를 끌어와야 하며, / 물은 인색한 매질이다: / 그것의 일정 부피는 / 같은 부피의 공기에 채워진 산소의 / 작은 일부만을 나른다.

A fish must therefore push a great stream of water past its gills without pause, and that pumping alone can consume a tenth or more of the energy it takes in. (①)

↳ 그러므로 물고기는 / 거대한 물줄기를 아가미 너머로 밀어내야 한다 / 쉽 없이, / 그리고 그 펌프질만으로도 / 그것이 섭취하는 에너지의 십분의 일 이상을 / 소모할 수 있다.

The gill is built so that none of the stream is wasted, each filament splitting into rows of thin plates that spread an enormous surface across the water's path. (②)

↳ 아가미는 지어져 있다 / 그 물줄기가 하나도 낭비되지 않도록, / 각 섬유가 얇은 판들의 줄로 갈라지면서 / 거대한 표면을 펼친다 / 물의 경로를 가로질러.

The water crosses that surface once and once only, entering at the mouth and leaving beneath the gill covers, never doubling back. (③)

↳ 물은 그 표면을 / 단 한 번만 가로지른다, / 입으로 들어와 / 아가미덮개 아래로 빠져나가며, /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

Blood carried along with such a flow would soon come level with it, and the exchange would halt with much of the oxygen still in the stream. (④)

↳ 그러한 흐름을 따라 실려 가는 피는 / 곧 그것과 같은 수준에 이르고, / 교환은 멈출 것이다 / 산소의 많은 부분이 / 여전히 물줄기 안에 남은 채로.

The blood instead meets, at every point of its passage, water richer in oxygen than itself, and the gradient that drives the gas across never closes. (⑤)

↳ 그 대신 피는 만난다, / 자신이 지나는 모든 지점에서, / 자기보다 산소가 더 풍부한 물을, / 그리고 그 기체를 건너 밀어 주는 기울기는 / 결코 닫히지 않는다.

A fish can strip some four-fifths of the oxygen from the water it swallows, while a lung, refilling the same pocket of air, leaves far more behind.

↳ 물고기는 / 자신이 삼킨 물에서 산소의 오분의 사가량을 벗겨 낼 수 있는 반면, / 폐는, / 같은 공기 주머니를 다시 채우면서, / 훨씬 더 많은 것을 / 뒤에 남긴다.

39번 [삽입] 정답 ③

■ 직독직해

[주어진 문장] Those chosen few, its designers hoped, would refine the public's raw wishes rather than merely echo them.

↳ 그 선택된 소수가, / 그 설계자들이 바라기를, / 대중의 거친 소망을 정련하리라고 / 그저 그것을 되울리는 것이 아니라.

The two words are used today as though they named one thing, yet in their oldest sense they mark two answers to a single question: whose hand holds the pen that writes the law?

↳ 그 두 낱말은 / 오늘날 마치 한 가지를 가리키는 듯 쓰이지만, / 가장 오래된 뜻에서 그것들은 / 하나의 물음에 대한 두 답을 표시한다: / 법을 쓰는 그 펜을 / 누구의 손이 쥐는가?

In a pure democracy the citizens hold it themselves, gathering in person and counting each voice on the spot. (①)

↳ 순수 민주정에서 / 시민들은 그것을 스스로 진다, / 몸소 모여서 / 각각의 목소리를 그 자리에서 헤아리며.

Such an assembly can act with startling speed, and it can turn with equal speed, for nothing stands between a passion and a law but the length of an afternoon. (②)

↳ 그런 집회는 / 놀라운 속도로 행동할 수 있고, / 같은 속도로 돌아설 수도 있다, / 왜냐하면 하나의 걱정과 하나의 법 사이에 서 있는 것이라고는 / 오후 한나절의 길이뿐이기 때문이다.

A republic hands the pen instead to a small body of delegates, chosen by the people and answerable to them. (③)

↳ 공화정은 그 대신 / 그 펜을 작은 대표단에게 건넨다, / 인민이 뽑았고 / 인민에게 책임지는.

Passed through such a body, a demand that began in anger may come back tempered, or may not come back at all. (④)

↳ 그런 기구를 통과하면서, / 분노 속에서 시작된 요구는 / 누그러져 돌아올 수도 있고, / 아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Madison, who pressed the distinction hardest, saw in the arrangement no distrust of the people but a guard for their own lasting interest, which the temper of one afternoon could not protect. (⑤)

↳ 그 구별을 가장 강하게 밀어붙인 매디슨은, / 그 장치에서 / 인민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 그들 자신의 지속적 이익을 지키는 방벽을 보았다, / 오후 한나절의 기분으로는 / 지킬 수 없는 그 이익을.

The distance is not, on this view, a wall raised between a people and their government, but the room in which their wishes are given a second reading.

↳ 그 거리는, / 이 관점에서, / 인민과 그들의 정부 사이에 세워진 벽이 아니라, / 그들의 소망이 / 두 번째로 읽히는 / 방이다.